✓ I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남 >

Q



뉴스홈 | **최신기사**

장외홈런 나오는 일본 유일의 돔구장 세이부 돔

NEWS

송고시간 I 2008-11-05 10:14











장현구 기자

기자페이지

<장외홈런 나오는 일본 유일의 돔구장 세이부 돔>

(도코로자와<日사이타마현>=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세이부 라이온스의 홈구장으로 일본프로야구 챔프전인 일본시 리즈 3-5차전이 열리는 세이부 돔은 일본 6개 돔구장 중 유일하게 '장외홈런'이 나오는 곳이다.

지붕으로 천장만 덮었을 뿐 내외야 스탠드 상층부는 비깥과 통하게 돼 있고 특히 좌우 펜스 뒤쪽은 뻥 뚫려 있어 각도만 잘 맞춘다면 외야 객석을 메운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나 구장 바깥까지 날아가는 홈런도 나올 수 있다.



그보다도 세이부 돔은 돔구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홈런 비거리로 더욱 유명하다.

올해 오릭스 버펄로스로 이적한 알렉스 카브레라는 세이부에서 활약하던 2005년 6월3일 요코하마와 홈경기에서 돔구장 천장 을 맞힌 뒤 좌측 천장을 또 맞히는 추정치 180m짜리 초대형 대 포를 쏘았다.

세이부 돔 지붕의 높이는 가장 높은 부분이 그라운드로부터 61.69m로 당시 일본 언론은 지붕만 없었다면 좌측 펜스 뒤 구 단 사무실까지 날아갔을 것이라고 경악했다.

세이부 구단은 카브레라 홈런 타구가 맞고 튕겨 나온 좌측 스탠 드 상단 지붕에 당시 날짜와 비거리를 상징하는 '180'을 새겨 놓았다.

구장은 1979년 설립됐고 1999년 지붕을 나중에 덮은 터라 시설 자체는 낡았다. 선수단 이동 통로 또한 비좁은 편. 세이 부와 일본시리즈를 치르는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은 1층에서 경기를 마친 뒤 구단 버스가 기다리는 5층 높이 옥외 주차장까지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한다.

세이부 돔에서 유독 초대형 홈런이 잘 나오고 타구가 도쿄돔처럼 잘 뻗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숨어있다. 도쿄돔은 구장 내부의 기압을 외부보다 0.3% 높게 팽창시켰고 그 결과 홈런이 많이 나온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라운드 자체는 평지이나 구릉을 깎아서 구장을 만든 터라 옆쪽 평면에서 보면 본부석 쪽은 지대가 높고 외야 쪽은 낮 은 구조다.

지붕이 생겨 통풍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밤에 산 위에서 아래로 부는 바람을 생각하면 기압의 미묘한 차이, 바 람의 영향 등으로 타자들은 공을 띄우면 득을 보는 편이다.

도쿄돔에서 150m짜리 초대형 홈런을 터뜨린 이승엽도 타구가 잘 나가는 세이부 돔에서 그에 필적하는 비거리를 양산 할 수 있다.

cany99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1/05 10:14 송고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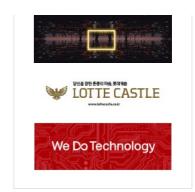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 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37 찰에 고발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0 대병원 자원봉사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